

대청호 오백리길에서 바라본 대청호

대청호 오백리길



영화 '7년의 밤' 촬영지

대전

대전·충청 지역 대청호 주변 200km 도보길 '두메마을길' '호반열녀길' 등 21개 테마 길 슬픈연가·7년의 밤 촬영 '호반낭만길' 인기 길 걷기·농촌체험·맛집 함께하는 '명품길'

비상등을 켜 채 이대로 도롯가에 멈춰 서고 싶은 날이 있다. 삶이 주는 막막함이다. 질퍽한 흙길을 지나 땅 끝에 닿았다. 미혹과 번뇌를 벗어난 깨달음의 피안(彼岸)은 물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듯 했다. 미동조차 없는 거대한 호수에 오리 한마리가 떠다닌다. 그 움직임이 작은 파동으로 발끝에 전해졌다. '괜찮다.' 나무 숲에 부는 바람이 말해주었다. '아무 것도 아니다.' 이름 모를 빛 깔고온 새가 지저귀었다.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빛이 눈부시다. '너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물과 바람과 햇빛이 건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눈을 감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다. 대청호오백리길에서는 누구나 오롯이 혼자였으나 결코 결핍하진 않았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 청주 등지를 걸치고 있는 인공호수다. 오른쪽으로 청주 상당구 문이면 덕유리, 왼쪽으로 대전 대덕구 미호동을 가르는 대청댐이 5년여 공사 끝에 1980년 12월 들어서면서 길이만 80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가두고 있는 물은 14억 9000만으로 국내 최대인 소양호, 충주호 다음이다.

대청호는 대전·충청권의 젖줄이자 지역주민들의 쉼터에서 10년 전 사람과 산과 물이 만나는 녹색생태관광사업의 하나로 '대청호오백리길'이 조성돼 한해 2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2011년 8월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발행한 소식지를 보면 대청호오백리길의 역사적 유래가 나온다. '대전·충청권 지역 대청호 주변 자연부락과 소하천을 모두 포함하는 200km 도보 길로 등산로, 산성길, 임도, 옛길 등을 포함하고 있다. 5개 지자체 도보길인 대전 대청호호스길, 대청호반길, 옥천 향수길, 보은길, 청남대 사색길 등을 포함하고 대청호 전체 상징성과 대전·충청권에 걸쳐 있는 대청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대청호오백리길이라 했다.'

21개 테마 길로 이뤄진 대청호오백리길의 대전 구간은 두메마을길(1구간), 찬샘마을길(2구간), 호반열녀길(3구간), 호반낭만길(4구간), 백골산성 낭만길(5구간), 대청호스길(21구간) 등 6개 구간이다. 6-20구간은 충북지역이다. 이중에서도 호반낭만길은 2005년 권상우·김희선 주연의 드라마 '슬픈연가' 이후 '트루픽션', '7년의 밤', '창궐' 등 여러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마산동삼거리-드라마촬영지-자연생태관-추동취수탑-연꽃마을-영고개-신상교로 이어진다. 천천히 12.5km 거리를 걸으면 6시간가량 걸린다.

대청호 물길을 옆에 낀 데크로드를 따라 걷다 보면 건너편 야트막한 산들이 물위로 비쳐 자연의 데칼코마니가 성큼 다가와 있다. 한가로이 노니는 오리와 마주치기도 한다. 데크로드 그트머리에 다다르면 슬픈연가 촬영지 안내판이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흙길이다. 막힘 없는 길에서 구불구불하고 물기 젖은 길로의 진입이다. 그 길 끝은 한결을 내디디면 깊은 물길로 이어지는 가지 못할 길이었다. 바다가 없는 내륙의 땅 끝, 물의 길 초입에서 40여 년 전 댐 건설과 함께 수몰된 압살마을이 떠올랐다. 청원 문이면 문덕리 대표 부락으로 마한시대부터 대물림하며 살아왔고 우리나라 남방계 취락과 북방계 중부지방의 건축양식이 잘 어우러진 곳이었다고 전해진다. 댐 조성 당시 4075가구, 2만 6000여 명의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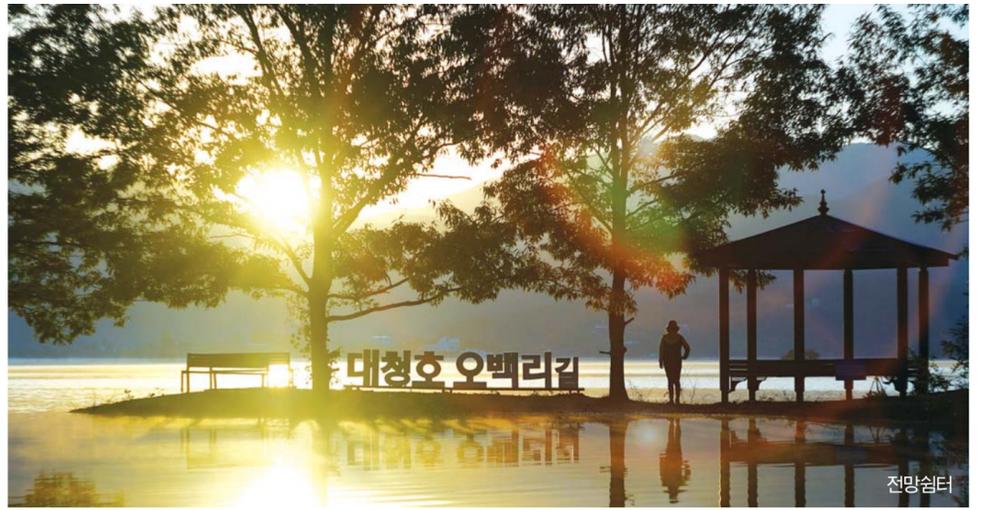
민들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고향을 떠나야 했다. 70m 깊은 물 밑에 이들의 흔적이 아득하게 잠겨 있다.

두메마을길(1구간)은 대청댐문화관-숫고개-미호동산성-비상여수로-삼정마을-이현동 거대역새밭으로 연결된다. 2012년 12월 준공된 비상여수로 댐 인근에는 로스가족공원 워터캠핑장이 있다. 이씨·민씨·강씨가 살아 삼정동이라 불리는 마을과 조선 후기 고종황제의 승지를 지낸 민후식이 처음 지은 '민평기 가옥'도 이 구간의 볼거리다. 찬샘마을길(2구간)은 무섭고 슬픈 역사의 길이다. 계곡산성에서 북쪽으로 6km 지점에 있는 성치산 정상에 둘러 쌓은 성치산성(대전시기 넘몰29호)을 내려오면 윗피골(성황당고개)에 도착한다. 마을 뒷산에 석축 성곽인 노고산성(대전시기넘몰19호)이 있고 후삼국시대 후백제 견훤의 군사와 신라가 이곳에서 큰 싸움을 벌여 그 피가 내를 이뤄 내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피골이다. 이후 직동에서 이어 찬샘마을로 바뀌었다. 대청호 주변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농촌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체험학습 특화마을로 변화하고 있다.

호반열녀길(3구간)에서는 관동요령(寬洞驛驛)을 뺄 수 없다. 열부 정려를 받은 쌍청당송유(1389-1446년)의 어머니 유씨부인이 1452년(문종 2년) 82세로 세상을 등지자 장례를 지내고 옆에 건축한 재실(齋室)이다. 대청에 '관동요령'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백골산성 낭만길(5구간)은 신상교-강살봉-백골산성-방죽골길-와정삼거리 13km다. 마산동산성 동남쪽 대청호 건너편에 400m 돌레로 지어진 테피식 산성이 백골산성이다. 석축 성벽이 무너져 원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래로 물이 갈라놓아 섬이 된 대청호의 산하를 탁 트인 시야로 조망할 수 있다. 청원 문의대교에서 시작하는 대청호스길(21구간)

은 대청호문화관에서 길을 접는다. 2004년 3월 대전에 내린 100년 만의 폭설로 부러지고 쓰러진 구룡산 소나무를 다듬어 장승으로 만든 구룡산장승공원이 주요 코스다. 대청호스길과 이어지는 수변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대청문화전시관과 대청공원이 나온다. /대전일보=문승현 기자 (사진=대전대케링공사 제공)

걸으며 사색하는 그림같은 호수



전망센터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 San Primo Men's and Women's Wigs). It features four portraits of men, a list of awards (Korea's Best Wigs, etc.), and promotional text including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and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Contact info: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